

2015년도 제4차 회의록(요약)

2015. 12. 2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 회의명

- 2015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 회의소집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3.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 11. 13.(금) 08:00~09:30
- 장 소 : 플라자호텔 오키드홀(4층)

4. 출석위원 및 회의 참석자

□ 출석위원 : 14인

- | | |
|---------------|-------------|
| ○ 보건복지부 | 정진엽 위원장 |
| ○ 기획재정부 | 代 정은보 (주형환) |
| ○ 국민연금공단 | 이원희 위원 |
| ○ 한국경영자총협회 | 이호성 위원 |
| ○ 전국경제인연합회 | 송원근 위원 |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이정식 위원 |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혜경 위원 |
|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이인상 위원 |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이길동 위원 |
| ○ 한국공인회계사회 | 윤경식 위원 |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김자혜 위원 |

- 바른사회시민회의 연강흠 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위원

□ 기타 참석자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김현준(간사)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최홍석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정재욱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이운표
- 실무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원종욱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 신진영

5. 회의진행순서

- 개 회
- 2015년도 제3차 회의록 보고 및 채택
- 의결안건 심의 및 의결
- 보고안건 논의
- 폐 회

6. 상정안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 15-11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15-12	2016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안)
보고 15-8	2015년도 제3차 회의록
보고 15-9	2015년도 8월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

7. 토론요지

□ 의결 제15-11호 :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송원근 위원)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예산 초과 이유를 설명 바람
- (김현준 간사) 한해 3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재부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270억원으로 조금 감소가 되었음. 그리고 올 7월 750만원 한도로 상향이 됨에 따른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소요가 조금 더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호성 위원) 연금 수급자들이 자신의 연금 수급액을 일종의 담보를 해서 대출 받고 나중에 자기 급여에서 상환하는 방식일 텐데, 긴급자금에 대한 수요의 타당성은 이해가 가지만 제도 전반으로 본다면 노후자금 자체는 어떻게든 확보를 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긴급자금이라든가 복지기금 관련된 사업들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국민연금 제도 취지에 맞겠다고 생각됨
- (정혜경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환을 제대로 못해서 노령연금 수급 자격권이 박탈된 예가 있는지 질의드릴
- (김현준 간사) 그런 사례는 없고, 미상환비율은 0.31% 정도임
- (김자혜 위원) 4대 보험 통합징수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해서 통합징수 시스템으로 간 것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축비용이 나가는 것을 보면 통합시스템이 과연, 이제 몇 년 됐으니까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임
- (김현준 간사) 시스템 개선에 103억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렇게 연체

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게 되면 국민연금에서는 연간 312억원 정도, 건강보험에서는 550억원 정도 가입자 부담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됨

- (정은보 위원)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적용금리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로 낮는데, 이것이 오히려 과도한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은 되지 않는지?
- (김현준 간사) 가입자와 수급자 분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금리를 낮춘 부분이고, 기금운용지침에서도 5년 만기 국고채 채권 수익률 이상으로 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과도한 수요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전월세 자금이나 의료비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정진엽 위원장) 공단에서 대부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의결 제15-12호 : 『2016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안)』

- (윤경식 위원) 과거 실적을 보면 목표 대비 굉장히 저조한 수준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임. 두 번째로 해외 연기금들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우리 목표 수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람
- (김현준 간사) 2013년 외부용역 결과를 보면, 유사펀드 556개의 상위 4분의 1의 능력 수준에 해당하는 IR은 0.58이고 상위 3분의 1에 해당

하는 IR은 0.4 정도로 나오고 있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기금운용 인력들이 본부에 226명 정도 밖에 없어서 1인당 자금 규모가 다른 나라 사례보다도 훨씬 많은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임. 이런 부분들이 매니저 능력을 나타내는 IR의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전문인력이 거의 100명 이상 늘어나게 되니까 매니저들의 능력을 보완 또는 시너지 효과를 낼 여지는 있다고 기대하고 있음

- (연강흠 위원) 혹시 계량모형을 통해서 새로 목표액티브위험을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면 변경하는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 (김준경 위원) 저도 관련해서, 과거 2010년부터 '13년까지를 보면 기금운용본부 액티브운용이 목표 위험한도 대비 소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에 운용 요원들의 업무유인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신진영 성과평가전문위원장) 저희가 먼저 연구원에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기금운용본부가 활용했던 액티브위험의 정도를 추정했고, 그것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0.58이라는 수준 자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전년도 수준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검토를 했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만 이것을 변경할 만한지는 따로 산출해 보지 않았고 테크니컬한 것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0.58은 분명히 그 오차범위 내에 있음. 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부분도 있고, 현재 국민연금의 시장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 액티브운용을 할 여지가 상당히 작음.

성과 측면에 있어서는 기금운용본부 성과급이 지급되기 위해서 목표 초과수익 이상의 어떤 초과수익을 내면 그것에 따라 성과급이 비례하는 구조로 성과급 체계는 구성돼 있음

- (정은보 위원) 표를 보면 총 액티브위험의 목표치는 계속 하향 조정 이 됐는데 실적치는 올라가는 이유는?
- (신진영 성과평가전문위원장) 목표치는 말씀드린 여건 때문에 기금운 용본부가 목표 허용위험 한도를 다 소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치 를 계속 낮춘 것이고, 실적치도 실제로 2010년, '11년, '12년까지 하 회하다가 '13년 약간 상회했고 '14년에 조금 특이하게 올라갔는데, 저희 보상위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해외주식 부분에 있어서 '14년도 변동성이 높아져서 예외적으로 초과했음
- (정은보 위원) 여기에 위험을 계산할 때 대체투자의 위험요인도 포함 되는지? 대체투자를 앞으로 모형화해서 집어넣으면 이 위험요인이 훨씬 커지는지? 언제쯤 이것을 반영을 할 계획인지?
- (홍완선 본부장) 대체투자는 현재 빠져 있고, 대체투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올라갈 것임. 올해 이미 1차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고 있고, 내 년 정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2017년 정도에 이 안 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정은보 위원) 1년에 국민연금이 45조 정도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이 전 받아서 유효수요 측면에서 수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 민연금이 국내 유효수요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됨. 현재 대체투자가 목표보다 낮는데 해외대체투자와 국내대체투자를 단위 위험당 수익률이라는 접근과 국내 유효수요라는 측면을 잘 비교해서 대체투자의 비중을 좀 더 높이면서 국내투자에 대한 기여를 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두 번째는 지금 국민연금에서 해외증권투자를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많지 않음. 앞으로 우리 자산운용사들도 경쟁력을 확보해서 해외 비즈니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예비운용사 제도와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 (정진엽 위원장) 공단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 보고 제15-9호 : 『2015년도 8월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

- (윤경식 위원)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 과거 사례를 보면 이사, 감사 선임 반대들이 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통과된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음. 이번에 정부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표가 돼서 모든 연기금들이 적용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관여하는 부분이 좀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것도 설명 바람
- (홍완선 본부장)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상의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음. 금융위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두 번째, 이사, 감사 반대를 실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의견이 관철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향후에 소위 소극적인 주주권이나 적극적인 주주권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는 않음
- (정혜경 위원) 지난 차 회의 때 민주노총 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장관님의 규정개정 요청이나 차기회의 검토보고 이런 말씀이 있으셨

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 관련한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최홍석 국민연금재정과장) 의결권행사지침 관련해서 전문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런 논의가 되면 관련 단체 의견 수렴 거쳐서 정리가 되면 기금위에 보고해서 개선방안을 결정을 해야 되는 순서가 있음
- (정혜경 위원) 그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면 되는지?
- (최홍석 국민연금재정과장) 지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정혜경 위원) 그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 일정 투자규모 이상 또는 일정 지분 이상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나 이를 확대·개선할 다른 위원회가 될 수도 있겠고, 심의·의결에 따라 행사되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정진엽 위원장)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안이 마련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홍완선 본부장)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고를 드리겠음. 현재 SAA 허용범위의 일정 부분 이탈한 부분들이 있음. 대체투자의 시장가격의 상승부분과 주식시장의 위축 등으로 인해 미세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상향 이탈을 하였음. 그다음 국내 대체투자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목표보다 상당히 적게 투자가 돼서 하향 이탈하는 부분이 있음
- (정진엽 위원장) 아까 국내 대체투자를 좀 늘려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국내 투자한 것도 수익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음. 수익률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인력도 많이 보충이 되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오늘 2015년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8. 의결사항

의안번호	안 건 명	결 과
15-11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의결
15-12	2016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안)	제1안 의결